



성(性) 바로 찾기

김명훈 | 세브란스병원 사회사업팀장
영국 버밍엄대 의료관리학 박사과정

우리 나라에서는 최근 한 트랜스 젠더 모델의 등장으로 한동안 잠잠했던 성전환에 대한 관심이 일반 대중들 사이에 다시금 일고 있고, 트랜스 젠더의 법적인 정체성에 대한 논란까지로 그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타고난 외형적인 성과 정신적인 성의 정체성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에게 과연 외형적인 성을 중시할 것인지 정신적인 성 정체성을 중시할 것인지의 명쾌한 결론을 내리기란 쉽지 않은 문제이다.

오늘날처럼 의학기술이 발달하여 트랜스 젠더로 외형적인 성 정체성을 변화시킬 수는 없었지만, 동서를 막론하고 성 정체성이 외형적인 성과 달랐던 사람의 예를 쉽게 접할 수 있고 동성애의 에피소드로 전해지고 있다.

우리 나라 조선시대 최고의 성군으로 손꼽히고 있는 세종대왕은 만여년으로 세자빈을 셋을 보았다. 첫 번째 세자빈 휘빈씨는 후에 문종이 된 세자가 자신의 침소에 들지 않자 남편이 좋아하는 여자의 신발을 태워 가루를 내서 그 것을 술에 타서 남편에게 먹이는 비방을 썼던 것이 발각되어 폐빈 신세가 되었고, 두 번째 세자빈 순빈씨는 동성애의 주인공이다.

순빈 봉씨는 소쌍이란 여종과 동성애에 빠져 동침을 일삼다가 발각되어 폐빈되기는 했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동성애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음행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세종대왕도 폐빈의 사유를 찾느라 크게 고심하였다고 한다. 서양 역사에서는 영국의 낭만주의를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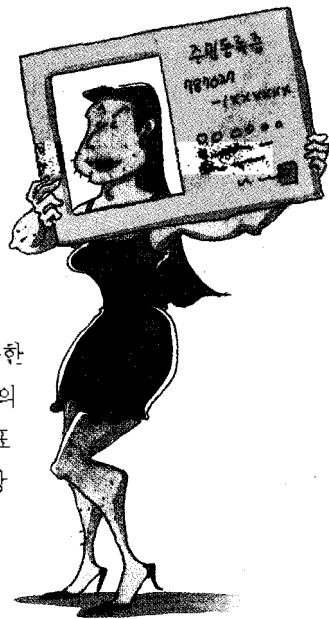
하는 시인 바이런이 있다. 바이런은 그가 공부한 캠브리지대학에서 자신의 동성애를 공개적으로 표출하여 당시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그렇다면 성적인 정체성이 전위된 것이 과연 병인가, 그리고 왜

이러한 사람이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기게 된다. 미국정신의학협회가 이미 1973년에 동성애를 병명 리스트에서 삭제한데서 명확히 밝힌 바와 같이, 동성애의 성적 기호가 병적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 학문적인 규정이다.

왜 이러한 사람이 있는가를 밝히기 위한 연구는 그 동안 많이 있어왔다. 한 예로 1992년 2월 24일 뉴스위크는 동성의 성적 정체성에 대해 선천성인가 아니면 후천적 학습에 의한 것인가를 다루었다. 동성애자로 일생을 마치고 사망한 사람들의 신경학적 해부 분석을 통해 동성애는 후천적 학습이라고 하기보다는 유전학적, 생물학적 원인에 의해 결정되는 선천적인 것으로 결론 짓고 있다.

그렇지만 후천적 학습에 의해 성 정체성의 혼란이 야기된다고 주장하는 일화의 연구들도 많기 때문에 선천적인 것인가 아니면 후천적인 것인가를 판가름하기란 쉽지 않은 듯하다.



최근 들어서는 성의 우월에 대한 논란 또한 성의 사회적 정체성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고 있고, 이러한 논의는 남녀의 사회적 역할을 재정립하는 모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US News and World Report』지의 최근호에 커비 스토리로 비중 있게 다루어진 내용은 여성이 남성보다 감정적으로나 이성적으로 우월하다는 것이다. 잠재되어 있는 여성의 이러한 우월성을 분출할 때를 맞이한 것일까? 여성들의 사회참여도 부쩍 늘었을 뿐만 아니라, 총선 및 대선에서 당락의 향방도 역시 여성표에 달려 있다.

윌턴 박종화 선생 원작의 '여인천하'가 이러한 세태를 배경으로 탄탄한 여성 시청자들의 성원을 받아가며 각 가정의 안방 분위기를 바꾸어 가고 있고, 아마도 가정 내 아빠와 엄마의 위계를 바꾸는데도 큰 몫을 하게 되지 않을까 한다. '병성황후' 역시 주인공 민비가 조선 후기에 역사의 흐름을 잡아가는 주요 인물로 잡아가고 있다.

두 드라마 모두 야사를 그리는 것이 아니라, 여성을 역사해석의 중심에 놓고 정사를 엮어가고 있는 점이 두드러진다. 성적으로 우월한 위치를 과시하던 역사적 인물이 적지 않다. 삼천궁녀를 거느리고 향락에 빠져 만년을 보내다가 소탕방에게 끌려가서 생을 마감함으로써 백제 시대를 마감하게 했던 백제의 의자왕이 있었다면, 이에 비견할만한 여제(女帝)가 있었으니 중국의 측천무후이다. 측천무후는 성의 노리개로 남자 궁인 삼천명을 거느리고 환락을 즐겼고, 더욱 강한 유희를 자극하기 위해 '무후주'라는 술까지 만들어 내기도 했다. 측천무후는 태종때 궁인으로 들어가면서부터 절곡한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다.

사십이 넘은 태종은 미모가 넘치는 14세의 미랑을 궁녀로 들여 시중을 들게 했다. 아버지 태종이 사망하자 왕위를 물려받은 고종은 이미 나이 어린 황태자 때부터 뛰어난 미모에 반해있던 터라 아버지 태종이 사망한 후 '감업사'라는 절에서 비구니로 지내고 있던 미랑을 후궁으로 불러들였다. 미랑은 헬레니즘시대의 세계 역사를 뒤바꾸려 했던 클레오파트라보다는 분명 미모와 기지가 뛰어났던 모양이다.

클레오파트라는 스물 두 살의 나이에 이집트를 구하기 위해서 자신을 나체로 선물로 포장하게 해서 쉰 셋의 케

사르에게 배달하여 케사르의 마음을 사로잡아 쫓겨났던 왕위를 복위하였지만, 케사르는 클레오파트라와 비모모다는 싫음에 반했으리라 짐작된다. 클레오파트라는 왕의 가문에서 물려받았던 왕위를 찬탈당하였다가 케사르의 힘을 빌어 왕위에 복귀한 것에 불과하지만, 측천무후는 궁인으로 들어갔다가 후궁이 되었고 세후의 자리까지 차지한 후, 자신을 측천무후로 추앙하도록 하였으니 그야말로 그녀의 기지와 카리스마는 클레오파트라와는 비견의 상대가 아닌 듯 하다.

사회의 변동에 따라 이제는 우리 사회에서도 여성의 사회적 성 정체성이 측천무후의 시대와 같이 더 이상은 평등성을 침해받지 않는 시대로 진입하였다. 효율적으로 충성을 이끌어 내기 위해 유교사상으로 위계를 강조하고 여성의 사회적인 참여를 억압했던 세습적 관습이 이제는 사회통제 논리로써의 관성력을 잃어가고 있다. 지금의 부모들은 여자아이들에게 남자아이들과 다름없이 태권도를 가르치고 있고, 단지 여성성을 강조하여 다소곳함을 비덕으로 알고 살아가도록 가르치기보다는 당당한 한 개인으로 살아가도록 가르치고 있다.

다시금 남녀의 사회적인 성 정체성이 유교 전통의 분화적 암흑기에서 벗어나 제 모습을 찾아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렇듯 사회적인 성 정체성은 사회변동에 따라 질풍노도와 같이 흐르기 때문에 범으로도 어찌 거스를 길이 없고 새로운 질서를 스스로 만들어 간다. 생물학적 성 정체성에 대해서는 만큼은 우리 사회에서 아직까지 태이날 당시의 외형적 모양새로 평생을 묶고 있다.

과연 언제까지 그 고집(?)을 버틸 수 있을 것인지? 왜 고집해야 하는지? 학습에 의해 성의 정체성이 선택되고 양육되는 것이라면, 생물학적 성의 정체성은 분명 잘 보호되어야 한다. 그러나 선천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라면, 생물학적인 성 정체성만을 고집하는 것은 당사자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격이 된다.

분명 사회적인 성의 정체성에 있어서는 남녀의 위상이 재정립되고 있다. 생물학적인 성의 정체성에 대한 규명을 뒤로 미루고 당사자들을 혼돈 속에 살아가도록 방치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의학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합의를 도출하여 바른 성 정체성을 찾아 인정해 주어야 할 것이다.